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 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 베데스다” [요 5:8-9]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루살렘 북쪽에는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고, 그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을 때는 어떤 불치병도 낫는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기대감은 '이곳에서도 역시 나는 안되는구나'라는 더 큰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연못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것은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연못이었지만, 이곳에서도 1등만 치유받고 1등만 살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결코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받고 있는 38년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그가 어떻게하면 경쟁에서 이겨 병을 고칠 수 있는지도 아니었고, 당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이 병자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 것입니다. 이 말처럼 되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아봤을 것이고, 기적을 기대하며 38년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의원도, 또 베데스다 연못도 그에게 일어나 걸아가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38년된 병자는 예수님을 찾지도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말을 해주셨습니다. 말 뿐만이 아니라, 평생 그를 괴롭히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셨습니다. 진짜 자비의 집은 베데스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비의 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정한 자비의 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의 인생을 허비하며 기적을 바랬던 병자처럼, 세상에서 기적을 바라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으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주시는 베데스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 베데스다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참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신은 고난 중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나요?
2. 당신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을 가족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